

전남농기원 곤충식품 생산기술 개발 '속도'

기능·성분 분석 효능 알리고
조리·외식창업 프로그램 운영
벼메뚜기 된장·간장 식품 개발
진도·담양에 소득화 모델 구축

심 전제가 될 전망이다.
24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곤충은 학습애완, 화분매개, 천적 외에도 최근 식용, 사료, 기능성 소재 등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62억원이었던 곤충 시장은 지난 2018년 375억원으로 성장했으며, 곤충을 사육하는 업체도 2015년 724개소에서 2018년 2318개소로 급증했다. 다만 식품으로 가공할 경우 대부분 곤충의 원형이 유지되면서 일부 소비자의 거부감이 큰데다 대량 표준생산기술이 미흡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벼메뚜기 연중사육을 위한 부화방법 및 수확시기 설정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서 연 2차례 부화, 탈피 후 20~25일 수확, 사육시설의 형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통밀, 벼, 대두분 등을 이용한 인공 사료와 벼메뚜기를 3~7% 첨가한 된장, 간장 등 3종의 식품제품을 개발했다. 벼메뚜기 된장의 경우 숙성도가 7% 상승하고, 간장의 경우 글리신이 33%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도와 담양에 곤충 증충사육 및 소득화 모델을 구축하고 최근에는 54명이 참가한 곤충사육농가 중심 연구회 조직을 측면지

원하기도 했다. 특히 진도군은 연간 금액이 1000kg로 진액과 환을 판매, 1100만원의 소득 향상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벼메뚜기 된장의 항산화, 항염 효능을 검증하고, 강진에 식용곤충 조리·외식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육 및 가공, 체험 등 성공 모델 발굴해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기반을 갖춘 전남도에서 곤충을 이용해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곤충을 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환경 보전사업
올 선정 4개 마을 5년간 지원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선도적인 친환경 마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농업환경 보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농업환경 보전사업 대상 마을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 확립 등 농업·농촌의 친환경 선도마을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환경 보전사업은 토양·용수·생태 등 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생산 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농업인이 환경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30여 개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 비용을 5년간 지원한 공모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순천시, 담양군, 강진군, 장성군 등 5개 시·군(각 1개 마을)에 5년간 각각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함평군 '백년마을(함평읍 소재)'은 친환경인증면적이 대폭 확대됐으며, 지난해 전남도 지정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는 등 농업환경보전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선도마을을 우수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함평 '백년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신규 선정된 4개 마을(순천시 공각, 담양군 청춘, 강진군 안풍, 장성군 생촌)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빙어 수정란 3000만개 9개 시·군 분양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빙어 수정란 3000만개를 도내 9개 시·군에 분양해 방류했다. 사진은 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이 빙어 수정란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이번에 분양한 수정란은 산란기에 잡은 어미빙어에서 받은 알을 인공 수정

시켜 저수지, 하천, 강 등 17개 수역에 방류했으며, 25일에서 30일 후 정도면 부화해 약 1cm 후 15cm 내외로 성장하게 된다.
겨울철 대표 어종인 빙어는 갈송과 단백질,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노화방지,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빙어·은어 수정란 약 14억5000만개와 뱀장어·메기 등 10개 품종 약 2400만 마리를 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다.

전남도 마을 센터 만들고 행복디자이너 배치

전남도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 행복 디자이너를 배치한다. 센터와 행복 디자이너는 마을환경 개선, 축제·문화·예술, 복지·돌봄, 마을 교육, 공동 생산 등 유형별 우수마을 공동체 모델을 발굴해 그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1시군 1센터

를 목표로 올해는 5개소를 공모해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6개 시·군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 또 마을 행복디자이너를 올해 50명, 오는 2022년까지 200명을 양성해 마을별로 배치한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지난해 172개소에서 올해 374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시·

군별 찾아가는 마을학교, 시·군 지원센터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주민이 주체가 돼 참여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 시대에 꼭 필요한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마을공동체 정책들을 개발하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24일 "코로나19 초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입주기업 임대료를 이번 달부터 2개월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89개사가 37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대상은 나주 식품산업연구소 14개사, 화순 생물의약품연구소 15개사,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소 16개사, 장흥 천연자원연구소 23개사,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소 7개사, 곡성 천

환경농생명연구소 14개사 등이다.
황재연 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혁신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해 신종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최근 연구용으로 보유 중이던 위생모자와 일체형 방호복 40벌 등 방역물품을 공공마스크 제조·공급업체인 장성 소재 (주)화진산업과 화순군보조산업진흥원에 기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형 강소기업 20개사 매출 7.1% 증가

인력 고용도 8.1% 늘어
지난해 전남형 강소기업 20개사의 매출액이 1792억원으로 전년 대비 7.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갈등, 내수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 수출 시장개척 등을 통해 이룬 성장기여가 의미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 강소기업 20개사는 매출액 성장과 함께 인력 고용 또한 지난해 대비 8.1% 증가한 47명을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49억원으로 전년대비 41%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허·상표·디자인 등 42건의 신규 지식재산권도 출원·등록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분쟁에도 4개 기업

이 신규수출을 시작했고, 기존 수출기업은 미국·중국 등 신규 수주처를 발굴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지역의 강소기업이 전남의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지난해 (주)더블유피 등 20개사를 제3기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연구개발(R&D), 마케팅, 성장전략 수립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확대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된 지 한 달 만에 '참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새롭게 도전하고 나섰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노동집약적 재래식 양식에서 벗어나 미래 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첨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모 사업이다. 그동안 1차 부산시(연어), 2차 경남도(바리류)에 이어 올해 1월 전남도(신안군, 새우·해삼)가 3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품이자, 국민 선호 식품인 굴비의 산업 육성을 위해 영광군과 긴밀히 협의해 '참조 스마트양

식 클러스터' 공모를 준비 중이다.
이번 참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은 국비 220억원을 포함한 총 400억원을 투입, 테스트베드(300억원)와 배후부지(100억원) 조성에 지원된다.
영광군은 공모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 확보와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며, 성공적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종자, 사료, 질병관리, 수형, 굴비 가공·유통업체 등이 포함된 민간SPC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지난 2월 용역을 발주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www.yhbeco.co.kr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정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